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사업, 국가 계획 반영 안돼

토지사용 협약 장기간 지연

환승시설 부족 고객 불편 가중

토지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했던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KTX와 SRT 등의 고속철도가 경유하는 서대구역과 천안아산역, 익산역, 전주역, 울산역, 마산역 등은 이번 국가계획에 신규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정무장 의원은 6일 시정 질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확정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2021~2025년)에

광주송정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는 전국의 철도역사 47곳(수도권 32곳·비수도권 15곳)이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계획에 반영됐지만, 광주송정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5년마다 복합환승센터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구축 계획, 방향, 전략 등을 제시해왔다. 3차 기본계획은 빠르고 편리한 환승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현을 비전으로, 환승 인프라 2배 확충과 3분 이내 환승체계 구축, 환승거리 절반 단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수도권 15곳은 지역거점도시 중심으로,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과 확충을 통한 이용자 편의 확대가 중점 내용

이다.

이에 따라 광주송정역은 다른 지역의 역사에 비해 이용자 편의 등이 뒤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송정역은 호남선을 운행하는 모든 KTX가 정차하고 SRT까지 운행하면서 이용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주차·환승시설이 부족해 이용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고, 제2차 사업 계획(2016~2020년)에도 반영됐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예정자인 우원협상대상자와 사업부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 간 토지사용 협약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광주시가 사업을 종료하고 별개로 주차빌딩 신축을 추진했다.

정 의원은 “송정역은 늘어나는 이용객 대비 환승 시설이 부족해 고객 불편과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3차 사업 계획에 따르면 환승 인프라가 2배 확충되고 환승 거리가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환승 체계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광주송정역이 빠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사업 시행 예정자와 부지 소유자 간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불확실했다 2018년 5월 사업 종료로 사업 시행 예정자 등에게 통보하면서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행 육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설치 등으로 환승 중심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도내 40개 골프장

고독성 농약 사용 검사 착수

전남도가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사용 등 잔류 농약 검사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6일 “7~8월 우기에 골프장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사용이 증가한 만큼, 도내 골프장에 대해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40개 골프장으로 기간은 12월 까지다.

토양 258건, 수질 115건을 채취 분석한다. 토양 검사는 골프장 규모에 따라 지점 수를 달리 선정하고, 수질의 경우 골프장별로 3개 지점을 선정 분석한다. 검사는 전남도와 시군이 합동 추진한다.

고독성 농약 3종,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항목 18종 등 28종에 대한 집중 검사가 이뤄진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오후 지역 현안사항 및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나주시청에서 열린 나주시민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미래산업 10개사와 665억 투자협약

전기차 전선 등 첨단기업 유치

전남도가 6개 시·군과 협력해 전기차 전선, 스마트팜 비료 생산 등 미래산업 관련 10개 기업과 665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다양한 첨단기업이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순천,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진도에 13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한원푸드시스템(주)은 50억원을 들여 나주 일반산단에 즉석탕류 및 가열식품 생산 공장을 증설한다.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정간편식 시장을 공략한다.

담양 일반산단에는 2개 기업이 50억원을 투자해 공장 규모를 키운다. (주)에코월드팜이 30억원을 투자해 건강기능식품 생산공장을, (주)하나로수경은 20억원을 들여 하우스 시설작물에 자동으로 양액을 공급하는 관수 제어장치 생산공장을 증설한다. (주)에스씨는 함평 해보농공단지에 200억

원을 투입해 전기 케이블 생산공장을 증설한다. 자동차에 쓰이는 저전압 케이블 전선 두께 비율을 20% 이상 줄이는 전선 특화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차 케이블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주)다익스엠은 화순 생물의약품산단에 70억원을 투자해 치과용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군내농공단지에 31억원을 들여 수산물 가공공장을 신설, 어민 소득증대 등 지역수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순천 해룡산단에는 4개 기업이 264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주)수인바이오가 151억원을 투입해 효과가 오래가는 코팅비료 및 스마트팜용 수용성 비료 생산시설을 갖춘다. 동남·중앙아시아, 중국 등 해외시장을 목표로 삼는다. (주)마린벨프는 67억원을 투자해 해조류를 이용한 합성수지(SAP) 흡수제 생산공장을 세워 해조류 분야 신시장을 공략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년 개교 에너지공대 중심 기업·연구소 유치”

김영록 지사, 나주 도민과 대화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내년 3월 문을 여는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와 관련해 “에너지공대는 전남도·나주시와 함께 중앙정부,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이 함께 만드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특수대학”이라며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도와 나주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에너지공대를 정상 개교시키고, 호남권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국가 대형 연구시설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 나서 나주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사업비 44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나주시 공산면에 건립 중인 ‘남도지방 역사박물관’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의병을 대표하고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품 박물관 건립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교육청과 연계해 수학여행단, 군인, 공무원 등 단체 관람객 유치와 의병 관련 국내외 행사를 유치에 나서는 등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나주시에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선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구축 사업이 최근 국가 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비수도권 광역철도 핵심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나주시와 함께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는 김영록 지사, 강인구 나주시장, 최명수 도의원, 김영덕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남도·나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호남 스타트업 펀드 50억 조성

광주·전남·전북 공동출자 조합

전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수시 공모’에 광주시, 전북도와 함께 공동출자한 펀드 ‘호남 엔젤투자허브 개인투자조합’이 선정됐다.

이번 호남권 지자체가 결성해 만든 개인투자조합(펀드)은 3개 광역자치단체가 20억원을, 공모 선정에 따라 한국모태펀드에서 30억원을 출자해 총 50억원을 조성한다. 공동 운용사는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맡아 전문투자기관 역할을 한다. 이중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4월 지역에서 최초로 ‘전문 창업기획사’로 등록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투자하고 있다.

투자 대상은 호남지역 우수 스타트업이다. 투자 방식은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 및 채권 등으로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인 ‘엔젤투자’로 진행한다. 전남도는 조성 펀드가 창업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운 지역 스타트업의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용 기간은 투자 기간 3년, 회수 기간 2년으로 총 5년이며, 조합 결성은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분양가·사업계획 변경 논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실

이경호 시의원 지적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은 6일 시정 질문에서 “중앙공원 1지구 등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고분양가, 반복되는 사업계획 변경 논란 등으로 그 본래의 의미가 빛이 바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 사업의 목적이 많은 공원 부지를 지켜내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면서 “광주시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로드맵의 부재와 종합적인 판단력 미흡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원 일부를 시가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를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서울처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압력이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행정수단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공공성, 투명성, 수익성 등이 균형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업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조정안을 마련했고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자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시는 “고분양가 주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법규정상 공원면적의 30%를 비공원시설을 건설할 수 있지만, 우리 시는 공익성 확보를 위해 비공원 면적을 10%로 낮췄고, 중앙공원 1지구는 비공원시설 면적이 8%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부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서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www.kwangshin.ac.kr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맥지소로 36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 신 대 학 교